

과테말라 한인 사회의 형성과 문화적응전략으로서의 특수성¹⁾



노 용 석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HK연구교수)
(anth99@hanmail.net)

1. 들어가며

현재 전 세계는 지역과 이념을 넘어선 '탈경계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기저에는 초국적 자본주의의 확산을 필두로 한 '세계화' 열풍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하나의 개별 문화권이 다른 문화와의 교류 없이 독자적 삶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환경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바야흐로 문화간 교류와 접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탈국경·다문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지점에서 해외이주 혹은 이민과 같은 현상은 탈경계화 사회의 중요한 지표이자 이를 대표하는 문화적 상징으로 여겨질 수 있다. 특히 해외이주는 단순한 '교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타문화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문화접변'의 과정을 겪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실체일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해외이주와 이민을 다루는 학문적 주제에서는 주로 민족주의적 시각이

1)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A00003).

나 한 사회 내 종족(ethnic)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한 부분에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 왔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민 문제의 본질적 측면은 어떤 사회 속에 다른 문화가 유입되는 ‘문화접변’과 ‘문화유입’의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얼마나 적절한 상호문화성이 유지되는가의 분석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영역일 수밖에 없다.

현재 중남미 관련 이민 및 이주 역사에 관한 연구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라과이, 쿠바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전경수 1996);(서성철 2000);(조돈문 외 2005 등) 하지만 이 연구의 대부분은 중남미 한인 이주사를 중심으로 초기 한인 사회 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현재의 세부적인 생활사적 특징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적인 측면에서도 초기 중남미 이주 국가 몇몇에 한정되어 있어서 현재 상당수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는 중미지역, 특히 과테말라를 비롯한 후발 이주 국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실시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약 100여 년의 이주 역사를 갖게 된 한인들의 중남미 정착이 현재 다양한 국가에서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가에 대한 폭넓은 관심에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심은 문화연구에 있어서 비단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중남미 지역에서 한인들의 생활문화가 어떤 특수성을 가지는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인 사회를 통해 해당 수용국가의 문화적 특성까지 고찰하고자 하는 다소 광범위한 의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 논문은 중미(Central America)에 위치한 과테말라 사회에서 한인 이주 사회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현재 생활양상은 어떠한가에 대한 민족지적(ethnographic)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과테말라 한인 이주 집단이 호스트 사회와 어떠한 상호관계를 유지하며 독특한 이주 특성을 형성하고 있는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필자는 연구를 위해 2011년과 2012년 각각 1개월 동안 과테말라를 현지조사 한 바 있으며, 체류기간 동안 다양한 과테말라 체류 한인 이주자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과테말라 한인 사회의 유기성을 관찰하고자 한인회와 한인교회, 상공인연합회, 봉제협회 등의 여러 공동체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하였다.

2. 이민과 이주, 그리고 문화적응전략

1) 이민과 이주의 문제

이민(immigration)이란 인구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이동 가운데 ‘국가의 경계’

를 넘는 인구 이동을 의미한다. 사실 한국에서 이민과 연관된 용어들은 교포, 교민, 한인, 한국인, 재외동포, 해외동포, 해외교포, 거류민 등으로 상당히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전경수 1996, 19).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이민은 그 개념에 있어서 보통 정주를 목적으로 본국을 떠나 수용국에 정착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포 혹은 교민과 같은 부류는 정주를 목적으로 당사자의 국가를 떠나 다른 국가에 편입되어 타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민의 범주는 위에서 나열한 바와 같이 그렇게 단순하게 묶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재외동포법'을 보면 재외동포의 범주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해외 영주권자',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하여,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재외동포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곧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²⁾이 '이민'이라는 한정된 개념 속에 총칭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본 논문에서는 조사 대상 범위의 명칭을 좀 더 포괄적인 '이주'(migration)라는 개념에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이주' 개념은 곧이어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소개할 과테말라 한인 사회 사례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더욱 효과적인 용어라 보인다.

2) 이주의 문화적응전략

중남미로의 한인 이주와 관련한 사회현상은 현재까지 주로 재외 한인사회의 형성과 역사성을 고찰하는데 집중하여 왔다. 대표적으로 전경수(1996)는 멕시코와 쿠바,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등을 중심으로 중남미로의 한인 이주 역사와 현재 생활사를 기술하였다. 또한 서성철(2000)은 중남미 한인 이주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쿠바이민사'와 관련하여 초기 이주 당시의 상황과 쿠바 한인사회 형성과 관련한 분석을 하였으며, 박영미(2002)는 멕시코 한인 이주사를 기술하면서 멕시코 전역에 형성된 한인공동체를 소개하였다. 이 저서와 논문들은 모두 한인 사회 형성의 역사성에 중점을 두면서 중남미로의 한인 이주 초기 생활상을 소개하고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외에도 한인들이 집중하여 이주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지에서 자신들의 생활사와 역사를 재조명한 책자들이 나와 있다.(브라질한인이민사편찬위원회 2011);(아르헨티나 한인 이민문화연구원 2005 등)

2) 한국의 '재외국민등록법'에서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이들을 총칭한다. 이때 이들은 해당국가의 영주권을 획득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위 연구들은 이주와 관련한 가장 핵심적인 영역인 문화접변(acculturation) 및 문화적응전략의 분석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지 않았다. 실제로 인류학을 비롯한 많은 문화연구 분야에서는 이주 등의 요소로 인한 문화변동 현상에 많은 관심을 표방 해왔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문화접변 연구이다. 1930년대부터 인류학에서는 문화변 동 연구의 일환으로 문화접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으며, 1936년 인류학 자인 레드필드(Robert Redfield)와 린튼(Ralph Linton), 허스코비치(Melville Herskovits) 는 그들의 논문인 “Memorandum on the study of Acculturation”(1936)에서 “상이한 문 화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 제1차적인 접촉을 지속적으로 하게 됨으로써 양 집단 의 원래의 문화패턴에서 변화가 일어날 경우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을 문화접변 이라고 정의하였다. 비(Bee, R. L. 1974, 105-106)는 두 개의 문화에서 문화접변이 지 속되어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결합’(incorporation), ‘대체’(replacement), ‘융 합’(syncretism or fusion), ‘고립’(compartmentalization or isolation) 이라는 네 개의 사회 변동모델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두 개의 상이한 문화가 1차적 접촉을 진행하면서 겪 게 되는 일종의 사회 작용 현상으로서, 문화접변으로 인해 두 개의 상이한 집단이 어 떻게 상호결합하며 변모하는가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문화접변 이론은 이 처럼 ‘접촉의 범주에 속한 사회의 문화변동 양상 및 두 사회의 적응전략에 대한 부분 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최근 들어 문화접변 이론은 변동 양상의 설명에 있어서 거시적 사회의 틀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부분까지 설명하고자 하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이 러한 분석 경향을 비교심리학(cross-cultural psychology)이라 일컫는데, 두 개의 상이 한 문화가 접촉하였을 때 거시적인 수준을 벗어나 개인의 태도나 가치, 행동, 언어양 식, 문화적 정체성들이 어떠한 적응전략을 수립하는가에 대한 분석이다. 즉 개별적 수준에서 문화접변의 당사자들이 어떠한 ‘문화적응전략(acculturation strategies)을 수 립하는가에 대한 분석인 것이다. 실제 이주민, 특히 해외이주민들은 타문화 사회로 이주함과 동시에 일종의 ‘문화충격’(cultural shock)을 경험하게 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 해 나름대로 적응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이러한 문화적응전략의 분석은 이주민 사회 의 문화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변동의 본질적 측면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이주와 관련하여 문화적응전략을 설명한 비교심리학의 초기 이론들은 이주자들이 ‘주류’(dominant) 혹은 ‘호스트’(host) 사회에 적응하고 스며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 던 것이 주요 경향이었다.(Van Oudenhoven and Ward, C 2012, 82) 하지만 베리(John

W. Berry 1990, 1997, 2001)는 이주자들이 무조건적으로 호스트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아니며, 그들이 가진 중요한 두 가지 기본적 질문에 의거하여 향후 적응전략을 달리한다고 말한다. 베리가 제시한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 a) 내가 가진 문화적 전통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가?
- b) 호스트 사회와 긴밀하게 접촉하는 것이 중요한가?

베리는 이주자들이 위의 기본적 질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유형의 각기 다른 문화적응전략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베리의 문화적응전략(Berry 1997, 10)

		cultural maintenance	
		Yes	No
contact with host society	Yes	Integration	Assimilation
	No	Separation	Marginalisation

위의 표에서 볼 때 통합(integration)은 자국과 호스트 사회 양 문화 모두를 중요시하며, 호스트 사회와 긴밀한 접촉을 진행하는 사례이고, 동화(assimilation)은 호스트 사회의 문화에 완전히 편입한 경우를 말한다. 반면에 분리(separation)은 호스트 사회의 문화와 전혀 어울리지 못하면서 전통적 자기 문화만을 고수하는 형태이고, 주변화(marginalisation)은 두 개의 문화 모두를 거부하며 철저히 주변화 되는 경우이다. 물론 해외 이주자들의 사례가 위의 모델에 모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략적인 이주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당히 유용성 있는 모델이라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베리의 모델을 기준으로 과테말라 한인 사회가 호스트 사회와의 접촉을 어떻게 유지하며 문화적응전략을 형성해 나가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과테말라 한인 이주의 과정

1) 중남미 이주사 개관

중남미 한인 이주의 역사는 약 백 년이 지난 시기부터 회고해 볼 수 있다. 1905년, 1033명의 조선인들은 한 달 반의 기나긴 항해 끝에 태평양 연안의 멕시코 살리나크루스(Salinacruz)에 도착했다. 이들은 이후 프로그레소(Progreso) 항을 거쳐 메리다에 도착하였으며 유카탄 반도 전역에 있는 퍼져 있었던 에네켄(Henequen) 농장으로 유입

되어 지옥 같은 노동을 경험했다.(서성철 2000, 142) 이후 이중 일부는 쿠바로 흘러들어 정착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현재 기록상 남아있는 중남미 지역으로의 최초 한인 유입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국가라는 틀을 기준으로 공식적 경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최초의 공식적 중남미 이주 역사는 1960년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본격적인 해외이주가 실시된 것은 1962년 3월 9일, 법률 1030호에 의해 ‘해외이주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이 법은 농업이나 광업, 기타 산업분야에서 노동을 하기 위해 해외로 이주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으로서, 대한민국 건국 이후 공식적으로 국민들의 해외 이주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해외이주법이 공포되면서 본격적인 이민이 시작된 곳이 다름 아닌 중남미지역이었다는 것이다.

1962년 해외이주법이 공포되자마자 한국에서는 ‘한백진흥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브라질로의 본격적인 ‘농업이민’이 추진되기에 이르렀다.(전경수 1996, 54) 이후 한국에서는 브라질 이외에도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 등지에 대한 공식적 이주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한인들의 의류 도매상과 공장이 밀집한 브라질 상파울로의 ‘봉헤지로’(Bon Retiro)와 파라과이의 ‘메르까도 꾸아뜨로’(mercado4) 등은 이 시기를 기점으로 형성된 한인 집단 거주지역이다. 아르헨티나 역시 유럽으로부터 유입된 백인 중심의 사회가 중추 역할을 하고 있으나, 1960년대 이후부터 수 백 명의 한인들이 집단적으로 ‘농업 이민’을 추진하여 정착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초기에 시행된 중남미로의 이주는 새로운 사회에 정착하는데 상당한 위험 요소를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한국인들이 이주를 시행하였으며, 이 과정에는 정부에서 제정한 공식적 법령을 기반으로 한 ‘농업이민’이라는 특징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 시기 이주를 행하였던 대부분의 한인들은 자신들의 생활 문화 근거지를 한국에서 타국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정착이민’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초기 이주자의 상당수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가로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점에 기인해 중남미를 선택한 이유도 있지만, 그렇다고 자신들이 택한 중남미 지역을 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경로로만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2) 과테말라의 역사와 정치경제 상황

중미는 '중남미' 전체 지역 내에서도 상당히 변방으로 인식되는 곳이다. 중미(6개국³⁾)은 여타 중남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력과 국토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누군가 중미 지역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상당히 특별한 원인에 근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중미에 위치한 과테말라는 1821년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을 기점으로 독자적인 근대국민국가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독립 후 과테말라는 잠시 중미연합주(Provincias Unidas del Centro de América)에 속하기도 했지만, 1838년부터 현재와 같은 근대국민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다. 과테말라 정부는 초기부터 강력한 독재에 기반한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유니티드 푸르트 컴퍼니(United Fruit Company, 이하 UFC)와 같은 다국적 기업에 종속된 경제체제를 유지하였다. 이로 인해 국가의 계급 구조는 양극화되고 빈부의 격차가 가중되었으며, 사회적으로 부정부패가 만연하였다. 이러한 사회부조리에 맞서 1944년부터 아레발로(Juan José Arévalo)와 아르벤스(Jacobo Arbenz) 같은 좌파 대통령이 등장하여 과테말라에도 잠시나마 개혁 정치가 가동되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개혁 시도들은 1954년 미국에 의해 계획된 군사개입으로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⁴⁾

과테말라의 역사는 군부의 억압정치와 이에 대항하는 반정부 세력 간의 갈등으로 대표될 수 있다. 특히 반정부 세력의 저항은 1960년을 기점으로 상당히 과격화되었으며, 1982년에는 4개의 반정부 세력이 연합하여 '과테말라 민족혁명연합'(Union Revolucionaria Nacional Guatemalteca, 이하 URNG)을 결성하여 본격적인 무장투쟁을 시작함으로써, 결국 과테말라는 1996년까지 기나긴 36년간의 내전 상태에 돌입하게 되었다. 1996년 과테말라 내전은 유엔의 중재를 바탕으로 정부군과 게릴라 사이의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종식되기에 이르렀다. 평화협정 이후 과테말라 사회는 표면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며 별다른 무력충돌이나 소요사태 없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

2013년 현재 과테말라의 총인구는 1,500만 명으로 중미국가 총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과테말라가 중미 국가 가운데서 가장 큰 시장을 갖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 중미 및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많은 기업들이 과테말라에 진출해 있

3) 이 논문에서 중미 6개국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를 칭한다.

4) 미국은 아르벤스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친미 군사쿠데타를 기획하였고, 이러한 행동은 과테말라 좌파 정권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는 UFC와 같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명분과 냉전이라는 요소가 들어맞았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다.⁵⁾ 그러나 스페인 식민지 시기부터 공고하게 구축되었던 극심한 빈부의 격차와 내전을 전후 해 시작되었던 불안한 치안 등은 여전히 가장 큰 사회구조적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과테말라의 살인사망자 수는 10만 명당 41.3명(2011년 기준)으로서 상당히 불안한 치안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외 기업의 진출에서의 애로사항이 늘어나고 국가신인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과테말라가 한국과 실질적 외교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은 1962년이였다. 1961년 과테말라에서는 우리 친선사절단이 갔을 때 자국의 개발사업에 근무할 수 있도록 약 2천 명의 이민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한다.⁶⁾ 이후 양국은 1962년 10월 국교를 수립하였고, 1974년에 주과테말라 한국 대사관을 개설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한국은 과테말라에 약 1.12억불에 달하는 투자를 하고 있으며 3.63억불의 수출과 1.41억불의 수입을 교류하는 등 중미지역 국가 가운데서 가장 활발한 상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3) 과테말라 한인 이주사

가. 초기 이주

과테말라의 한인 이주 역사는 대략 196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다. 과테말라 한인들의 여러 증언에 의하면, 최초로 과테말라에 정착한 한인은 1962년 7월 5일 초대 주멕시코 대사를 역임한 이성가(李成佳)⁷⁾를 따라 한국-과테말라 교환학생 자격으로 입국한 김용덕(현재 만 75세)이다. 물론 그 이전에 과테말라에 한인의 입국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후 자기 삶의 정착지로서 과테말라를 선택한 이는 김용덕이 최초라고 볼 수 있다.⁸⁾ 김용덕은 당시 육군대학에 군복무를 하던 도중 유학시험에 합격했으며, 이성가 대사를 보필하면서 유학을 하기 위해 과테말라에 입국하였다. 하지만 김용덕이 입국한 시기는 과테말라 내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으며,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산카를로스 국립대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 결국 김용덕은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없었고 1968년 과테말라 현지인과 결혼을 한 이후 군대와 각 정

5) 과테말라의 2013년 GDP는 540억 달러 규모로 600억 달러의 도미니카 공화국에 이어 중미 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총 교역액 역시 269억 달러로서 289억 달러의 교역 규모를 가진 코스타리카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6) '경향신문', 1961. 10. 16일자 "이민 사업을 속히 추진시키자" 보도.

7) 1962년 한국은 최초로 중남미 국가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주멕시코 대사가 파나마를 포함하는 중미국가들의 대사를 겸임하고 있었다. 주멕시코 대사관의 상주공관이 설치된 시기는 1962년 7월 11일이다.

8) 김용덕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이 과테말라에 입국한 1962년 7월 5일 당시 이우영, 김오동, 김순진이라는 3명의 한인이 과테말라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한국외국어대 스페인어과 출신으로서, 수 년 후 과테말라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다.

부 기관 등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며 정착하게 되었다. 이렇듯 1960년대 초반 과테말라에는 한인들이 거의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체 형성이나 문화적 충격 등을 논할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1980년대를 지나면서 집단적인 이주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조금씩 한인들의 과테말라 정착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초기 과테말라 거주 한인 증가의 대표적 사례는 조재봉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과테말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조재봉은 1984년 최초로 과테말라에 입국하였는데, 어떤 경위로 입국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단 그는 과테말라 입국 이전 한국을 떠나 유럽에서 잠시 거주하는 등 상당히 다양한 지역을 거쳤으며, 과테말라에 입국했을 때 사회경제적 상황이 그리 좋은 것은 아니었다. 조재봉의 증언에 의하면, 입국 당시 과테말라 거주 한국인은 김용덕을 포함하여 총 5명이었다. 그는 입국 초기 김용덕의 도움을 받아 한국인이 운영하는 봉제공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공장은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갖추지 않은 채 건립한 것이라 오더가 그리 많지 않았다. 결국 사장은 공장의 운영을 조재봉에게 맡기고 한국으로 귀국해 버렸다. 이후 조재봉은 독자적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봉제 오더를 받아오면서 이윤을 늘리기 시작했다. 당시 미국은 1983년 7월 의회에서 통과된 '카리브지역 경제회복법'(CBERA)에 의거해 CBI(Caribbean Basin Initiative) 계획이 실행 중에 있었다. 이 계획은 미국이 카리브해 지역에서 쿠바로부터 비롯된 사회주의 세력의 확대를 막고 중미·카리브지역 국가들의 경제건설을 촉진하여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특혜무역정책으로서, 과테말라를 비롯한 CBI 수혜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미국이 수입관세를 붙이지 않고 사들여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시 조재봉은 CBI 정책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으나 '운이 좋아' 이 제도의 혜택을 전면적으로 누릴 수 있었다.

당시 직원들 월급이 한 달에 48불이었는데, 미국에다 봉제만 해주면 한 장에 4불을 주는 거예요. 한 라인에서 하루에 약 1,500장을 뽑으니까, 당시 환율이 900:1 정도인데, 자고 나면 3-4천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중략)... 이렇게 돈이 잘 들어오니 한국으로 돌아갔던 사장이 소문을 듣고 다시 과테말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나한테 20만 불을 주면서 다시 공장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과테말라 거주 조재봉 증언).

과테말라는 냉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전과 같은 격화된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중미 지역에서 도미노 현상을 우려한 미국의 각종 경제보호 정책이 실시되기도

하였다. CBI는 바로 이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였으며, 조재봉은 수혜자가 된 셈이었다. 이렇듯 대미 수출 사업에서 과테말라가 상당히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소문은 이내 한국에까지 퍼져갔고, 이에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상당수의 한인들이 과테말라로 들어오게 되었다.

과테말라에 최초로 설립된 한인 봉제공장은 재미교포가 설립한 ‘에이스 인터내셔널’과 한국에서 최초로 투자하여 설립한 ‘꼬르꾸아’가 있다. 이외에도 ‘은성’, ‘성실’, ‘새한’ 등 많은 한국인 봉제공장이 건립되어 1990년대 초반까지 가동을 하였다. 하지만 당시 정확하게 몇 개의 한인 봉제공장이 설립되었는가에 대한 자료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1988년 과테말라에 입국한 유동열의 증언으로 볼 때, 당시 한국인 봉제공장이 56개 정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과테말라로의 초기 한인 이주는 과거 중남미로 ‘농업이민’을 떠나던 것과는 달리 봉제 산업을 중심으로 한 ‘단기적 이윤’ 획득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으며, 실제 많은 한인들이 상당한 이윤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당시 과테말라로 들어온 한인들은 대부분 ‘이민국’을 통한 정상적 루트로 입국한 것이 아니라, 단기체류 자격으로 들어오거나 제3국을 통해 밀입국한 이들로써, 과테말라에서 장기적 체류를 구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나. 마길라도라(Maquiladora)를 통한 대규모 이주

1980년대 중반 이후 과테말라 내에서 CBI 정책 등의 실현으로 한인 봉제 공장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한인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1990년까지 현재와 같은 거대 규모의 한인 사회가 형성된 것은 아니었다. 과테말라의 한인 사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마길라도라로 불리는 보세 가공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1989년 이후부터였다.

1989년 과테말라 정부는 수출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외국인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령(Decreto) 제29-89 호로 수출진흥법(Ley de Maquila / Ley de Fomento y Desarrollo de la Actividad Exportadora y de Maquila)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마길라(Maquila) 업체⁹⁾에 대해서는, 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 승인을 조건으로 a) 기계류 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 면제, b) 원부자재 및 포장재 수입 시 1년간(2년

9) 조립 또는 제조를 목적으로 무관세로 관련 장비 및 자재를 수입, 생산품을 과테말라 외의 나라로 재수출하는 업체를 일컫는다.

간 연장가능) 관세유예, c) 소득세 10년간 면제¹⁰⁾, d) 평화협정세(IETAAP) 면제¹¹⁾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마길라 기업이 위치한 장소는 과테말라 국내 어디든 관계없이 자유무역지대로 간주되며 기업 폐쇄 시 설비의 이동도 보장된다.

위와 같은 혜택은 1980년대 후반이후 노동생산성이 악화되어 이전만큼 이윤을 획득하지 못하던 한국의 다양한 산업에게 상당히 흥미로운 조건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한국 내에서 하향세를 경험하고 있던 섬유 봉제업체들에게는 노동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고 미국으로의 수출이 상당히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최적의 투자여건으로 떠올랐다.

과테말라 진출 주요 한국기업 현황 (한국무역협회, 2010년 기준)

회사명	진출년도	현지 고용인원 현황	업종
신원	1997년	1,320여 명	의류업
세아	1998년	6,780여 명	의류업
한솔	1998년	1,930여 명	의류업
광림	1998년	1,000여 명	의류업
헤네시스 어패럴	2005년	1,080여 명	의류업

마길라도라는 과테말라뿐만 아니라 멕시코를 비롯해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등지에서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과테말라는 멕시코에 비해 저렴한 인건비와 타 중미국가에 비해 인구 및 인프라가 높다는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투자 효용가치가 높았다. 이러한 이유로 1997년 신원그룹이 과테말라에 현지 공장을 세우면서부터 한국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되었고, 과테말라 현지에서도 이를 상당히 반기는 입장이었다. 신원이 처음 과테말라에 투자를 하던 1997년은 36년간의 과테말라 내전이 평화협정을 통해 종결되던 해로서, 당시 알바로 아르수(Alvaro Arzu) 과테말라 대통령이 직접 신원 공장의 준공식에 참석해 ‘한국의 봉제회사가 과테말라의 진주라고 치사하기도 했다.’¹²⁾

이렇듯 과테말라 내에서 마길라도라 산업이 본격화되던 1990년대 중후반부터 한인 사회는 거의 폭발적인 확대를 시작한다. 한인 봉제 공장들은 과테말라시티와 그 인근 지역인 비야누에바(Villa Nueva) 와 믹스코(Mixco), 나랑호(Naranjo), 팔린(Palin),

10) 이 조항은 2015년까지 유지되며, 2016년 이후부터 對과테말라 투자업체는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11) 평화협정세 면제는 2008년까지 존속되었다.

12) ‘매일경제’, 1997. 11. 19일자 “신원 과테말라 의류기지 준공” 보도.

산크리스토발(San Cristobal), 산후안(San Juan), 치말테낭고(Chimaltenango) 등지에 집중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들 공장에서는 대부분 여성용 정장과 와이셔츠, 니트를 생산했으며, 생산된 물품은 전량 2989 수출진흥법에 의거해 미국으로 수출되었다. 공장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경영주 혹은 관리직으로 들어와 근무하였고, 과테말라 주민들이 노동자로 고용되었다.

하지만 이 당시 상사 주재원 및 봉제공장 경영을 목적으로 입국한 한인들 역시 단기체류 형식으로 과테말라에 입국하였으며, '정착 이주'를 목적으로 한 이들은 거의 없었다.

다. 상인 및 서비스업 집단의 형성

과테말라에서 마길라도라를 통한 봉제업은 한인들이 증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한인 봉제공장의 확장은 상당히 집단적이고 단기간에 이루어졌으며, 현재 과테말라 한인 공동체의 주요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과테말라 한인 사회에서 봉제공장이 가지는 중요성은 크지만, 그렇다고 과테말라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들이 봉제공장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봉제공장과는 다른 방식으로 과테말라 한인 이주사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상인 및 자영업 집단이다.

2013년 현재 과테말라 한인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유동열은 1988년 11월 과테말라에 최초로 입국하였다. 그가 과테말라에 온 목적은 봉제공장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1970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고, 1983년부터는 소위 '스탁'¹³⁾ 오피상을 하면서 멕시코와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르, 파라과이, 중동 등의 한인들에게 스탱제품을 '덤핑가격'으로 공급하였다. 그러던 중 과테말라에서 자신의 물건을 납품받아 장사를 하던 상인들로부터 과테말라의 경기가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1990년부터 자신이 직접 과테말라에 가게를 내어 장사를 하기 시작했다.

1988년에 내가 과테말라로 들어와 보니 나를 과테말라로 불러들인 두 명과 더불어 총 5가구가 장사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후 한 번씩 한국을 갔다 올 때 마다 한국인 가게 수는 조금씩 늘어났다. 한인 가게 수가 20-40개 정도 일 때까지만 해

13) 스탱(stock) 제품이란 공장에서 수출 등의 목적으로 물건을 만들 때 불량률 등을 재고하여 주문량보다 약 5% 정도 더 많은 물량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주문량보다 많이 만들어져 제조 공장에 잉여물로 남게 되는 제품을 '스탁제품'이라고 한다.

도 '춘삼월'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루의 매출액이 만 불 정도를 훨씬 상회했고 일하는 도중에는 돈을 다 못 셀 정도였다. 그래서 돈을 자루에 담아두었다 집에 들어가서 세고 그랬다 (한인회장 유동열 증언).

봉제공장이 들어오기 시작한 1980년대 이전부터, 과테말라시티 소나1 등의 중심가에서 한인들이 장사를 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계속 과테말라에 정착한 것은 아니었으며, 유동열의 증언에서 보듯이, 1980년대 후반 과테말라에서 활동하고 있던 한인 가게 수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대개 한국이나 미국으로부터 값싼 가격에 물품을 사들여와 과테말라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등의 중미국가들을 대상으로 판매하였다. 주로 거래되는 물품은 의류와 신발을 포함한 잡화들이었고, 거래를 통해 상당히 큰 이윤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문이 퍼지게 되자 과테말라 내 한인 상인들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과테말라시티 소나1의 20번가(calle)와 21번가(calle) 사이에 위치한 '뿌에블리토'(Pueblito)라는 건물에 집중적으로 입주해 장사를 하기 시작하였다. 2013년 현재,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구성된 뿌에블리토 건물에는 한인 가게가 약 130여개 이상 입주해 있으며, 이 건물 외곽에 자리 잡은 한인 가게까지 포함하면 총 300여개 이상의 한인 상가들이 집중해 있다.

또한 이렇게 많은 한인들이 과테말라에 모이게 되자 어느 시기부터 한국인을 고객으로 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현재 과테말라시티의 소나7을 중심으로 시내 곳곳에는 상당히 많은 한국식당과 편의점, 미용실, 이발소, 병원, 한의원, 안경점, 슈퍼, 한인전용 숙소집, 노래방들이 입주해 있으며, 이외에도 12개의 한인 교회와 천주교 성당도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거의 과테말라 현지인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4. 과테말라 한인 사회의 특성과 문화적응전략

과테말라는 여타 중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종족적 다양성이 상당히 높은 국가이다. 크게 보면 전체 인구의 약 50% 이상이 라디노(ladino)¹⁴⁾라 불리는 메스티소

14) 흔히 백인과 인디오(indio)의 혼혈을 인종적으로 메스티소라 부르며, 이 용어는 중남미 전체 국

(mestizo)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외 40% 이상의 주민은 23개 부족으로 이루어진 마야 원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과테말라는 마야 원주민의 '인종(race)'적 편견을 없애면서 하나의 '종족'으로 인식하게 하여 다문화주의를 완성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¹⁵⁾ 또한 여타 중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과테말라 역시 역사적으로 볼 때 이주와 이민을 적극 장려하고 추진한 국가이다. 과테말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식민시기부터 독립이후까지 이주와 이민 정책을 광범위하게 사용하였으며, 이와 같은 양상은 현재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기반하여 과테말라는 타문화와 혼종문화를 바라보는 입장에 있어서 상당히 개방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해외에서 이주한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상당히 '관대'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현재 과테말라의 한인 사회는 호스트 사회로부터 '관대'한 시선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과테말라에 거주하는 한인 사회의 독특한 문화적응전략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이윤획득을 위한 단기 이주의 특성

주과테말라 한국 대사관은 2010년 1월 1일을 기준하여 과테말라 내의 한인이 약 1만 여 명 거주하고 있고, 교민(2,700명)보다 상사주재원 등 진출업체 관련자(7,300여 명)가 더욱 많다고 하였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외교통상부는 과테말라 거주 재외국민 인구를 12,918명(영주권자 3,101명, 체류자 9,817명)으로 게시하고 있다.¹⁶⁾

가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과테말라는 특별히 메스티소의 개념을 라디노라는 말로 대체하고 있다. 라디노는 인종적으로 백인과 인디오의 혼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한 근대국민국가로 편입된 원주민(indigena)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인종적으로는 원주민이지만 자신들의 전통 복식과 관습을 버리고 현대적 삶을 살고 있는 이들 모두를 라디노라 일컫는 것이다.

15) 현재 과테말라에는 마야 원주민의 인권 및 문화정체성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실제로 마야 원주민의 존재가 과테말라 내에서 존중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마야 원주민은 36년 간 과테말라 내전의 가장 큰 피해자였으며, 아직까지도 과테말라의 빈곤과 대표적 소수자로 인식되고 있다.

16) 위 통계는 과테말라 현지에서 구전에 의해 떠돌던 정보를 사용한 것이기에 정확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현지 거주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주과테말라 한국 대사관은 좀 더 정확한 과테말라 거주 한인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2013년 6월부터 8월 24일까지 '한인사회 기초조사(인구센서스)'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의 중간 결과에 의하면 과테말라 거주 한국인은 670가구, 2,000여 명(한국국적, 영주권, 외국국적 모두 포함)으로 집계되었다(2013. 9. 4일 기준). 물론 이 조사는 모든 거주 가구에 대해 강제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한인회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실시된 것이므로 상당히 많은 한인들이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 만약 과테말라 거주 한국인을 12,918명으로 본다면, 이것은 타 중남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것이다. 참고로 타 중남미국가 중 한인들의 거주가 많은 국가로는 멕시코 11,364명, 브라질 상파울로 48,468명, 아르헨티나 22,580명, 파라과이 5,126명

통계의 정확성은 차지하더라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과테말라 내 한인들의 주거 유형이 장기정착 유형이 아니라 단기이주 형태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앞선 장에서 한인 이주의 형태를 설명하면서 몇몇 사례를 제시한바 있다. 과테말라 거주 한인들의 많은 수는 대부분 영주권 획득 등의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이주한 것이 아니라 이윤을 획득한 이후 다른 곳으로 다시 이주하기 위해 입국한 이들이다. 이것은 마길라 봉제기업뿐만 아니라 소니1를 중심으로 한 상인 집단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단기거주를 목적으로 한 이주의 형태는 최근 중국의 한족(漢族)들이 전세계 각국에서 이윤획득을 위해 단기이주를 한 후 다양한 지역으로 옮겨 다니는 경향이라든지, 여타 중남미 국가의 한인 이주 형태에서도 상당부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사실 중남미는 한인들에게 아직까지 지리적으로 상당히 먼 곳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선진국으로 인식되는 곳이 아니다. 또한 냉전 시기를 거치는 동안 상당히 불안한 정치가 실시되었고, 내전 등의 정치 불안요소가 끝난 이후에도 치안의 부재는 상당히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과테말라 역시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고 있고 사회적 인프라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 또한 36년간 내전의 후유증은 현재까지도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면서 치안 등의 상황이 상당히 열악해 외국인들이 편안히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한인들이 과테말라로 이주하게 된 경위는 거의 경제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과테말라는 미국 시장과 근접한 중미 국가 가운데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활용 가능한 노동력이 풍부하며, 이에 노동인건비가 상당히 싸다. 또한 과테말라는 중미 국가들에 대한 물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에 엘살바도르나 온두라스 등의 상인들이 과테말라로 들어와 여러 가지 물품을 도매로 구입해 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과테말라는 자연스럽게 중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류 도



매창구이자 봉제산업의 전진기지로 성장할 수 있었고, 또한 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교두보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당연히 과테말라로 오게 된 한인들은 위와 같은 경제적 이점에 기반하여 이주한 것이다.

등을 꼽을 수 있다(외교통상부 2013년 참고).

실제로 앞선 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과테말라에 이주한 한인들의 주요 부류는 마길라 업체와 연관된 이들이거나, 여타 중남미 지역을 이동하며 장사를 하였던 사람들, 그리고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가기 위해 잠시 정착한 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소위 '선진국'으로 이주를 하여 그 사회에서 '하층민'으로 살아가는 유형이 아니라, '후진국'으로 이주하여 원주민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을 '향유'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후진국'인 과테말라는 정착을 위한 거주지이기보다는 이윤을 얻을 수 있는 단기간의 정착지일 뿐이다.

또한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과테말라의 경제 상황 역시 한인들의 단기 이주를 부추기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과테말라 한인들이 종사하고 있는 봉제업의 경기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상승된 노동인건비가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1984년 과테말라에 입국한 조재봉은 당시 봉제 기업 라인의 노동자 한 달 인건비가 약 48달러였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1999년 과테말라 대통령이 된 알폰소 포르티요(Alfonso Portillo)는 집권 4년 동안 매해 20% 이상의 인건비를 올렸으며, 그 결과 현재 과테말라 봉제기업의 한 달 인건비는 468달러 가량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낮은 노동인건비를 핵심 무기로 삼고 있던 한인 봉제기업들은 수익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또 다른 위기는 한인 봉제기업의 '든든한' 법적 기반이 되었던 수출진흥법 2989의 시한이 2015년에 끝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한인 봉제기업들은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이것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 크나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많은 한인기업들은 과테말라 현지 공장을 인건비가 더욱 싼 중미지역 국가나 동남아시아 등지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곧 대규모 한인 이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봉제산업이 점점 바닥으로 가면 (과테말라) 교민사회는 큰 변화를 겪게 된다...(중략)... 지금 마길라 29-89법이 모든 소득세가 면제되는데, 만약 소득세까지 내라고 하면, 그걸 내고도 있을 사람이 거의 없지요.(서목 증언)

이렇듯 자의반 타의반으로 과테말라 현지 사회와 '깊은' 접촉을 하지 못하는 한인 사회의 특성은 '한글교육'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 이주한 한인들은 민족 정체성 고양과 자문화를 잊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차세대에게 한글교육을 시키고 있다. 과테말라에서도 1989년 한인회가 설립된 이후부터 줄곧 한글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했으며, 1990년 1월 과테말라 한인교회에서 한글학교를 처음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¹⁷⁾ 현재 과테말라 한글학교의 학생은 약 250-60명으로서, 대부분 한인 이주민 자녀들이 등록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과테말라 내 한글학교의 목적은 민족성을 고양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가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사전교육으로 진행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실제 유소년시기 과테말라에 입국한 한인 자녀들의 상당수는 과테말라에서 국제학교 등을 졸업한 후 미국 등으로 유학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영어와 스페인어 구사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지만, 문화적으로 볼 때 과테말라나 미국 등지에서 '이방인'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의 대학을 졸업한 이들의 대부분은 그곳에서 취직을 하지 못하고 다시 과테말라로 돌아오거나 한국으로의 진출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테말라에서는 가정 형편이 아주 어려우면 몰라도 대부분 국제학교를 보낸다. 국제학교를 보내는 목적은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이다...(중략)... (과테말라 이주) 1.5세대들은 과테말라에서 초중고를 다니지만 대학은 (과테말라를)나가서 교육을 받는다. 이 애들은 과테말라로 다시 돌아온다 할지라도 주류 사회에 편입되지는 못한다. 하지만 이들이 한국으로 가더라도 언어 문제 때문에 주류 사회에 편입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중략)... 해외동포자녀법에 보면 만 6세 이전에 해외로 나온 대한민국 국적의 해외동포는 군대를 안가도 상관없다. 하지만 과테말라의 부모 중 10명 중의 9명은 모두 한국으로 보내 군대를 보내고 있다. 군대를 보내야 말을 배우니까...(조재봉 증언)

위와 같은 현실의 이유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부모세대가 자신들의 자식을 미국이 아니라면 과테말라에 그대로 안주시킬 의향이 없다는 인식에 기인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한인들의 인식과 단기이주 형태는 과테말라 내부에서 한인들을 고립시키고 현지 문화와의 충돌을 조장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과테말라에서 현지 문화와 한인 사회의 가장 심각한 충돌은 한인들의 삶의 터전인 기업내부에서부터 발생하고 있다.

2)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부재 :

엔클레이브(enclave)로서의 한인 사회

해외 이주에 있어서 단기 이주 형태의 사례는 과테말라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17) 과테말라 한글학교의 설립은 한인회가 주도적으로 하였다. 하지만 초창기 한인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한글학교 운영이 어려워 한인교회에 운영을 위탁하였다.

하지만 이 유형에서 중요한 논점은 단기 이주의 특성이 호스트 사회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과테말라 한인 이주 사례는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큰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이것은 무엇보다도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과테말라에 이주한 한인들은 대개 호스트 사회에서 노동자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현지만을 고용하는 입장에서 있다. 특히 과테말라의 봉제기업들은 노동생산성 강화를 위하여 값싼 현지 노동력을 대거 고용하였다. 하지만 해외진출 기업에서 노동자를 관리한다는 것은 단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전략의 수준이 아니라, 좀 더 복합적인 문화적 인식에 기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때 기업 혹은 공장은 노동현장일 뿐만 아니라, 두 개의 문화가 상호작용하고 있는 문화접변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테말라 한인 기업들은 소위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intercultural communication)’의 중요성을 대부분 간과한 채 기업 경영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홀(Hall, 1959)은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 정의하였다. 즉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복수의 문화가 접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화충격과 갈등, 오해, 적응문제 등에 대해 언어적·비언어적 요소, 문화적 가치관, 행동 및 사고방식 등의 분석을 통해 소통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세계화와 더불어 국가 간의 자본 교류가 급증하면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은 학문적 담론을 넘어서 비즈니스 환경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과테말라 한인 기업의 상황은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을 논하기에는 너무나 동떨어진 처지에 놓여 있었다.

대체적으로 과테말라 현지 기업에 이주한 한인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스페인어 구사능력이 높지 않았다. 또한 단기이주를 목표로 최대한의 이윤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기업 현장에서 관리자와 피고용 현지민과의 관계가 원활히 정립되지 않았다. 특히 이주 초기 혹은 현재에도 간혹 발생하고 있지만, 한인 관리자들은 과테말라 노동자를 대할 때 있어서 강압적 노동통제방식, 즉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큰소리를 치고¹⁸⁾, 잔업 등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였다. 이것은 “느리디 느린” 과테말라인들을 최대한 빨리 움직이게 해 적기에 목표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것

18) 이 경우 주로 “빨리 빨리”를 뜻하는 “apurate”, “aprisa”나 “mas rapido”를 큰 소리로 외친다.

은 일반적인 과테말라의 노동문화를 섬세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행동이다. 개략적인 과테말라의 노동문화는 낮은 목소리로 지시와 명령하기보다 제안하는 것을 좋아하고,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경멸적인 어투로 말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한다.¹⁹⁾ 그러므로 과테말라에서 한인들의 인상은 ‘고함치고 사람을 패는’ 것으로 상당부분 고착화되었다. 이렇듯 과테말라 한인 기업들의 노동통제 방식은 현지 문화에 근거한 ‘동의’보다 ‘강제’에 중점을 두면서 경영 관리상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다른 외국인 기업에 비해 한인 기업은 훨씬 엔클레이브적이다²⁰⁾...(중략)... 독일 인이나 미국인처럼 문화를 뒤섞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중략)... 한인들은 과테말라에서 문화적으로 잘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나름대로 차별하며 운영하는 미국인 클럽, 독일인 클럽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문화적으로 적응을 했다. 하지만 한인들은 과테말라 사회와 사회적, 문화적 연계가 없는 엔클레이브로 존재한다(한국국제노동재단 2003: 120-121).

물론 위에서 언급한 사례는 다양한 견지에서 해석될 수 있겠지만, 과테말라 한인 사회의 고립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부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과테말라 한인 기업의 엔클레이브적 특성은 민족 혹은 종족적 특성을 비교해 분석해 볼 수도 있다. 또한 두 사회가 가진 특유의 노동문화를 비교함으로써 그 원인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주와 문화적 융전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과테말라 한인 사회의 고립성은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었다. 호스트 사회와 동화하며 이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값싼 노동력만을 찾아 이주한 것이기에, 과테말라 이주 한인들에게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문제는 상당히 부차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앞서 밝힌 베리의 모델로 볼 때, 과테말라의 한인 사회는 ‘극단적 분리’(separation)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의 터전이라 할 수 있는 기업 혹은 작업장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은 크게

19) 이러한 한인 기업의 노동통제 방식이 과테말라에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나 모든 기업에 전면적으로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2012년 현지조사 시 필자는 여러 곳의 한인 기업들을 방문하여 공장 등을 둘러볼 수 있었다. 이 당시 경영진들은 과테말라 한인 기업의 노동통제 방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면서, 새로운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상당부분 노력하고 있는 중이었다.

20) 본디 엔클레이브는 사전적 의미로 한 국가나 도시 내의 소수민족 집단 거주지를 의미하는 말이다. 하지만 위 맥락에서의 엔클레이브라는 의미는 현지 사회와 교류가 일어나지 않는 ‘고립적 문화’라는 의미가 더욱 크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다.

사실 현지조사 과정에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한인 기업의 망각이 과테말라에 진출한 한인들의 기질에 기초한다는 증언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²¹⁾ 증언들의 주요 내용은 과테말라에서 소규모 봉제업을 하는 이들의 대부분이 한국의 평화시장 혹은 동대문 등지에서 일하던 재단사나 하층 노동자였고, 또한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졌으며, 이로 인해 현지 노동자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격식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지나치게 개별 인성에 의존한 설명으로서, 전체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은 타 문화에 대한 존중과 그 문화와 융합하고자 하는 의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은 사전 교육이나 학습을 통해 어느 정도 획득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호스트 사회와의 접촉을 얼마나 깊게 설정하는가의 문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과테말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역시 호스트 사회와의 접촉의지가 현저히 낮으므로 생길 수 있는 한인 사회의 또 하나의 특성인 것이다.

3) 공동체의 분열과 파편화 : 과테말라 한인회의 사례

단기 이주와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부재로 설명할 수 있는 과테말라 한인 사회의 특성은 한인 공동체 내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과테말라 한인 사회에 형성된 공동체의 분열 및 파편화라는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과테말라 한인 사회에는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및 모임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과테말라 한인회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한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한인회’를 만들어 공동의 이익과 친목을 도모하는 경우가 많다. 과테말라도 1989년부터 한인회가 구성되어 2014년까지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다. 하지만 과테말라 한인회의 역사는 선의의 설립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1989년 과테말라에서 최초로 한인회가 설립된 이유는 이주민들의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함이었다. 과테말라와 한국은 2007년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여 현재 비자 없이 90일 간 단기간 방문을 할 수 있다. 또한 과테말라는 장기체류자를 위한 영주 거주비자 등을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한인들의 과테말라 이주가 시작된 1970년대부

21) 특히 위 증언에서 언급한 한인들의 대부분은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후반 사이 과테말라에 입국한 초기 이주자에 집중되어 있었다.

터 1990년대 말까지 과테말라로 오기 위한 비자 발급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었으며, 또한 비자가 발급되었다고 해도 단기(6개월) 비자여서 이를 갱신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과테말라에 체류하는 한인들의 대부분이 관광을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문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때 이 어려움을 공동으로 대처해 해결하고자 결성한 것이 한인회였다.

그러나 과테말라 한인회는 결성 초기부터 상당한 불협화음이 있었다. 초대 한인 회장 김용덕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한인 사회 내부에는 봉제기업 쪽 사람들을 중심으로 뿌에블리또에 있는 한인을 한인회에 가입시키면 안 된다는 입장이 많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뿌에블리또의 상인들이 소위 '보따리 장사'를 하며 전 남미를 떠돌고 있기에 진정한 의미의 과테말라 거주 한인이라 보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위의 반대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어있기도 했다. 많은 뿌에블리또의 상인들은 남미 및 전 세계 다양한 지역을 이동하다 과테말라에 (밀)입국한 경우가 많았으며, 상당수의 상인들은 이 과정에서 밀수를 하거나 불법적으로 물품을 통관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한인 상인들의 불법행위는 간혹 과테말라 세관이나 경찰의 표적이 되기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던 한인 봉제기업들이 한인이라는 동일성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봉제기업 쪽에서는 상가 쪽의 불법 통관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장돌뱅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서 그날 그쪽(봉제기업) 사람들과 큰 싸움이 났던 적이 있다. 이후 상인들은 약 4-5년 간 한인 봉제공장에서 나온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일을 일절 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시장에 현금이 많은데, 공장 쪽에서는 이걸 못 바꾸니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공장 쪽의 사람들은 뿌에블리또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돈이 많고 성공한 것에 대해 어쨌든 끌어내리고 폄하하려 했다(뿌에블리또 상인 증언).

이렇듯 초기부터 한인회의 운영은 봉제기업과 뿌에블리또를 중심으로 한 상인 집단의 반목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두 집단은 각각 '과테말라봉제협회'와 '상공인연합회'를 만들어 한인회 주도권 싸움을 계속 하였으며²²⁾, 90년대 중후반에는 한인회 운영

22) 두 집단 간의 주도권 싸움이 있었다고는 하나, 실제 대부분의 한인회 회장은 봉제기업 쪽에서 선출되었고, 상공인연합회는 항상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현재까지 과테말라 한인회 회장은 총 14명이었으며, 이 중 뿌에블리또 상인 중 한인회장이 된 경우는 두 번이다.

에 한국의 조직폭력배가 개입하거나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과테말라 한인 사회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후 자연히 한인들은 한인회라는 전체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였고, 소규모 모임이나 동호회 등을 중심으로 모임을 가질 뿐, 전체적인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지 않았다.²³⁾

위와 같은 한인회 내부의 분열은 소위 '이주의 정통성'과 과테말라 당국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불법적 활동(밀수 및 불법통관 등)'이 핵심 이슈로 작용하였다. 즉 '검증되지 않은' 한인들이 과테말라에서의 이윤 획득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그 주요한 대상은 이주가 상대적으로 빈번한 상인들이었다.

이렇듯 한인회가 분열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두 대립 집단이 서로의 정주성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만약 두 대립집단이 장기적 관점에서 과테말라에 정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대립의 해결 방향은 다소 상이했을 것이라 본다. 결국 단기 이윤획득의 목표를 가진 봉제기업과 상인들은 최단 시간 내 과테말라에서 이윤을 얻어야만 했고, 이 과정에서 두 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한인회의 분열이라는 형태로 발산된 것이다.

5. 결론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이 위세를 떨치면서 국가별 이주와 이민의 양상 역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선진국'으로의 이주를 막연히 희망하던 예전과 달리, 현재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한인들이 이주해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해외 이주의 추세에서, 중남미로의 이주는 좀 더 색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1962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의 농업이민이 '후진국'으로 낙인찍힌 한국에서 '미지의 세계'로 '희망'을 찾아 떠난 것이라면, 1980년대 이후 수많은 중남미 국가로 이주하고 있는 한인들의 모습은 전지구적 자본주의와 결코 떼어 놓고 설명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한인 해외 이주 사례 중 중남미 지역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과테말라 한인 이주사에 대한 개략적인 민족지를 서술하였다. 논문에서 살펴본 한인 사회는 호스트 사회와의 문화접촉을 최소화하며 극단적인 이윤획득을 추구하

23) 2014년 현재 과테말라 한인회는 이전 사업에서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새로운 비약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많은 한인들은 이 모임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지 않다.

고 있었으며, 이와 더불어 변화하는 경제양상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 비교심리학적 견지에서 볼 때, 이와 같은 과테말라 한인 사회의 이주 유형은 호스트 사회와의 접촉을 극단적으로 기피하는 '분리' 유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위의 현상은 고정화된 해외 이주 개념에 조금은 상이한 특성을 제공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중남미의 대다수 국가들은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 쟁취 이후 자국의 필요에 의해 상당수의 해외 이주자들을 받아들였으며, 또한 1980년대 이후부터는 미국이나 유럽 등으로 자국민들을 해외로 방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 역시 1960년대 해외이주법의 설치 이후부터 상당수의 인구가 새로운 기회를 찾아 해외에 정착하고자 이주를 실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양상은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이주' 혹은 '이민'이라고 볼 수 있으며, 설령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히스패닉(Hispanic)과 같이 호스트 사회와의 접촉이 상당히 긴밀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호스트 사회 내부에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자유무역과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계시장의 개편은 해외이주의 양상에 있어서 투자와 이윤 획득만을 목표로 한 단기 이주의 형태를 생산해 내게 되었다. 현재 중남미로 이주한 많은 한인들의 이주 양상이 여기에 해당하며, 특히 과테말라 사례는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윤획득을 위한 단기 이주는 전 세계 자본시장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현재보다 더욱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과테말라 한인 해외이주 유형을 소개하면서, 특히 중남미에서 다양한 이주를 분석할 수 있는 시발점을 만들고자 하였다.

향후 이 부분의 발전된 연구를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분석들이 시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과테말라 한인 단기 이주를 더욱 확연히 볼 수 있도록 과테말라 내 타 외국인들의 해외이주 사례(일본 혹은 화교 등)를 연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한인회를 제외한 다양한 한인 공동체 혹은 모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호스트 사회와 접촉하고 있는가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 지적한 단기 이주의 '부정적' 측면 이외에 '긍정적' 부분은 어떻게 조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편. 『멕시코 한국기업의 노동문화 적응』 (서울: 생각의 나무, 2000)
- 국제노동협력원. 『해외진출기업 HRM 시리즈: 과테말라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서울: 매일노동뉴스, 2009)
- 박영미. “초기 한인 이주자들의 멕시코전역으로의 분산과 각 지역별 한인회 연구”, 『스페인어문학』 제33호
- 브라질한인이민사편찬위원회. 『브라질한인이민 50년사』 (상하울로: 브라질한인회, 2011)
- 서성철. “쿠바이민사”,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11호.
- 아르헨티나 한인 이민문화연구원. 『아르헨티나 한국인 이민 40년사』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한인회, 2005)
- 전경수. 『세계의 한민족』 -중남미-. (서울: 통일원, 1996)
- 조돈문. 2000. “마길라도라 산업 내 한국기업의 노사관계와 노동자”. 『멕시코 한국기업의 노동문화 적응』 (미래인력연구센터, 서울: 생각의 나무, 2000)
- 한국국제노동재단. 『과테말라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서울: 해외진출기업 HRM 시리즈(8), 2003)
- Bee, R. L. Patterns and Processes. (New York: Free Press, 1974)
- Berry, J. W. “Psychology of acculturation: Understanding individuals moving between cultures.” Applied cross-cultural psychology, pp. 232-253. 1990.
- _____.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 pp 5-34. 1997.
- _____. “A Psychology of immigr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57, pp 625-631, 2001.
- _____.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 pp 697-712, 2005.
- Hall, E. T. The Silent Language. (New York: Greenwood Press, 1959)
- Van Oudenhoven, J. P. and Ward, C. “Facing Majority Cultures: The Implications of Transnationalism and Demographic Changes for Immigrant Acculturation.”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23, pp 81-97. 2012.

: 14. 1. 12.

: 14. 1. 23.

: 14. 2. 4.

A Formation of Korean Society and Distinct of Acculturation Strategies

- Focusing on Case of Guatemala -

Yong Seok Noh,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K Research Professor)

keywords

short term migration, Guatemala, enclav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cculturation strategies

This article is a case study focusing formation of Korean society in Guatemala and distinct of migration. Korean people have begun migration to Guatemala since around 1962, and now there are around 10,000 Korean people living in Guatemala. The Korean society in Guatemala is divided two major groups, workers of maquiladora and merchants. They just want pursuit of profit without contact with host society. In the respect of cross-cultural psychology, the type of migration model in Korean society of Guatemala can be called 'separation', rejecting contact with the host society. There are so many problem such as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n the workshop of Korean factory and split of Korean community in Guatemala Korean society. The reason of the problem is resulted from negative effect of short term migration, and is also one of the crucial distinct in emigrant of Latin America. Neo-liberalism focusing free trade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 makes a new type of short term migration which is just seeking profit without contact the host society. The case of Korean society in Guatemala is typical short term migration.